

환유 표현의 의미특성*

임 지 룡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 들머리

이 글은 일상 언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환유 표현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 양상, 그리고 작용 원리를 통하여 그 의미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유적 현상은 일상 언어를 비롯하여 표현과 이해의 모든 층위에서 광범위하게 내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이러한 현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언어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환유 표현에 대한 언어 학계의 인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환유는 은유와 함께 언어의 수사적 장식 표현으로서 문학·문체론·수사법의 고유한 영역일 뿐 언어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¹⁾ 둘째, 변형생성문법의 경우 (1)과 같은 환유 표현은 선

* 이 논문은 2005년도 동일문화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환유의 전통적 관점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Gibbs(1994: 59-78), Ungerer & Schmid(1996: 114), Taylor(1995: 122), 김종도(2005: 13-19) 참조.

주제어: 인지언어학, 개념적 환유, 환유 표현, 매체-목표, 사상 과정, 지시점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ual metonymy, metonymic expression, vehicle-target, mapping process, reference-point

택제약을 어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되며,²⁾ (2)와 같은 환유 표현은 형식 논리상 이치에 어긋남으로써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 (1) a. 지하철이 파업을 결정했다. b. 그녀는 돈과 결혼했다.
(2) a. 유치원생이 도시락을 먹는다. b. 그 친구를 전화번호부 속에서 찾아냈다.

글자 그대로의 측면에서 볼 때 (1)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우 특별하고 기이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상 언어에는 (1)-(2)와 같은 표현이 수없이 많이 존재할 뿐 아니라, 언중들은 이러한 표현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산하며 이해한다.

본질적으로 환유 및 은유와 같은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적 범주를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와 은유가 언어의 수사적 장식 표현이 아니라, 새롭고 추상적 범주를 개념화하는 인지적 기제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에서도 비유 표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연구 성과는 대부분 은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환유의 의미특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다.³⁾

이에 이 글에서는 인지언어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사고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환유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둘째, 일상 언어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환유 표현의 양상을 정밀히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하기로 한다. 셋째, 다양한 용법을 바탕으로 하여 환유 표현의 작용 원리를 설명의 단계에서 규명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환유 표현의 내재된 양식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2) 변형생성문법의 경우 적형의 문장은 의미자질로 구성된 단어들 간에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의미적으로 수용 가능한 논리적 규칙, 즉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지하철이 파업했다."라는 표현은 '파업하다'의 주체가 [-유생적]이므로 선택제약에 어긋난 부적형의 문장으로 간주된다(Ungerer & Schmid 1996: xiv 참조).

3) 우리 학계에서 '환유'에 대한 논의로는 임지룡(1995), 김기수(1998), 류웅달(1998), 정희자(1999), 이진옥(2000), 이종열(2002), 김종도(2005) 등이 있다.

2. 환유의 기본 개념

2.1. 환유의 지위

환유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인지언어학의 출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환유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Kövecses & Radden 1998: 38-39 참조). 전통적 관점의 경우, 첫째, 환유는 단어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언어 층위의 문제이다. 둘째, 환유적 과정은 지시점을 갖는 단어의 의미 전이를 포함한다. 셋째, 환유는 명칭 간의 대치 관계이다. 넷째, 환유는 ‘인접성’ 또는 ‘근접성’에 의한 두 실체의 관계이다. 다섯째, 환유는 ‘비유적 언어(figurative language)’로서 ‘문자적 언어(literal language)’에 기생한다. 이에 비해 인지적 관점의 경우, 첫째, 환유는 개념 층위의 문제이다. 둘째, 환유의 지시점은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 담화를 포함한 개념 구조의 전이로 확장된다. 셋째, 환유는 언어적 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실체가 다른 정신적 실체에 접근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넷째, 전통적 환유의 인접성 또는 근접성은 두 가지 인접해 있는 개념적 실체의 지식 구조, 즉 틀로 설명된다. 다섯째, 비유적 언어로서 환유의 사용은 문자적 언어 사용보다 더 적합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은유와 관련된 환유의 인식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환유의 전통적 관점을 따른 Ullmann(1962:218)에서는 “환유는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관련된 단어들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본질적으로 은유에 비하여 흥미가 덜하다.”라고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지적 관점의 경우, Taylor(1995:124)에서는 “환유는 은유보다 더 기본적인 것임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Aitchison(2003:173)에서는 “환유는 은유보다 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은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복잡적임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으며, Evans & Green(2006:311)에서는 “환유는 개념의 조직화에서 은유보다 더 근본적이며, 은유 그 자체는 환유적 기초를 갖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환유의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ibbs(1994:319-320)에서는 “환유는 인간 개념 체계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다양한 환유 표현은 임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였고, Taylor(1995:124)에서는 “환유는 의미 확장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의 하나이다.”라고 하였고, Ungerer & Schmid(1996:128)에서는 “환유는 감정 범주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환유는 언어 층위를 망라한 개념 층위의 문제이며, 은유보다 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현상이며, 의미 확장의 근간이 됨으로써 환유가 갖는 지위는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다.

2.2. 환유의 정의

환유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적 기제이다(Evans & Green 2006:310-311 참조). 본질적으로 환유는 개념이나 영상 차원의 문제로서 모든 표현과 이해의 영역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추상적 범주를 개념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강력한 인지적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수사학의 비유법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환유’와 구별하여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를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라고 일컫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akoff & Johnson(1980:35)에서는 “환유는 한 실체를 사용하여 관련된 다른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그 햄 샌드위치가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다.)”의 경우, ‘ham sandwich(햄 샌드위치)’는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을 지시하게 된다.

둘째, Kövecses & Radden(1998:39)에서는 “환유는 동일한 영역 안에서 한 개념적 실체, 즉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 즉 ‘목표(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이 경우 ‘매체’란 다른 실체에 주의를 유도하거나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실체이며, ‘목표’는 매체에 의

해 주의나 정신적 접근을 제공받는 실체를 뜻한다.

셋째, Taylor(2002:590)에서는 “환유는 기본적으로 실체 e를 지시하는 어떤 표현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 e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실체에 대해 사용되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전화번호부에 들어 있다.”의 경우, 실체 e인 ‘나’가 e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체인 ‘내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된다.

이상에서 볼 때,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⁴⁾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 즉 ‘매체’가 또 하나의 실체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부분으로써 전체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함’이나 ‘전체로써 부분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함’을 ‘개념적 환유 관계⁵⁾(conceptual metonymic relation)’라 하고, “영화계에 새 얼굴(→배우)이 나타났다.”나 “주전자(→주전자의 물)가 끓는다.”와 같은 언어적 사례를 ‘개념적 환유 표현(conceptual metonymic expression)’, 또는 ‘환유 표현’이라고 한다.

2.3. 환유와 은유의 비교

환유와 은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akoff & Turner 1989:103, Ungerer & Schmid 1996:128-130, Kövecses 2002:146-149 참조).

먼저, 환유와 은유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첫째, 본질상으로 개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며, 노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고의 모형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관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언어의 자원을 확장시키는 수단이다. 넷째, ‘사상 과정(mapping process)’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인접성(contiguity)’의 개념은 환유의 정의에서 핵심 사항이다. 그런데 인접성의 관계를 환유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실제 세계의 문제로 보는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개념적 층위의 문제로 간주한다(Radden & Kövecses 1999: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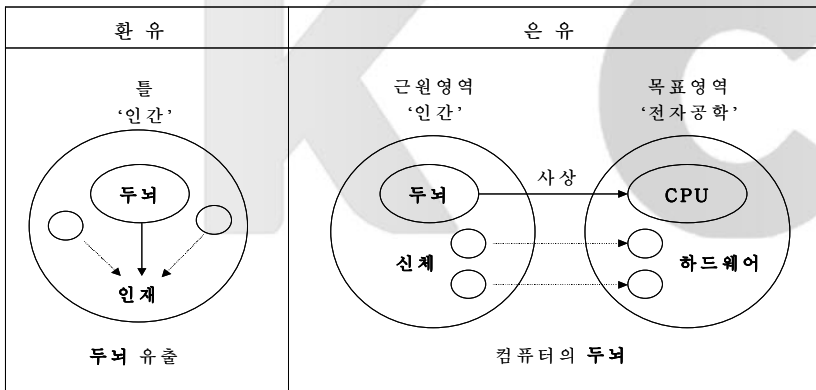
5) 이와 관련하여 Radden(ms.:4)에서는 어휘적 환유는 광범위한 개념적 관계를 이용하며, 그 유형은 100개 이상의 개념적 환유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환유와 은유의 차이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영역 및 ‘사상(寫像, mapping)’의 측면에서, 환유는 한 영역 속의 사상인 반면, 은유는 다른 영역 간의 사상 관계이다. 둘째, 활성화 기제의 측면에서, 환유는 동일한 개념 영역 안에서 매체와 목표 간의 ‘인접성’에 의해 활성화되는 반면, 은유는 서로 다른 개념 영역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유사성’에 의해 활성화된다. 셋째, 기능의 측면에서, 환유는 한 실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실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지시의 기능을 갖는 반면, 은유는 한 실체를 다른 실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과정을 (3)의 ‘두뇌’에 관한 두 가지 용법을 통해서 구체화해 보기로 한다.

- (3) a.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해외로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 b. CPU는 컴퓨터의 **두뇌**이다.

(3)에서 ‘두뇌’는 문자적 의미와 달리 (3a)의 경우 ‘인재’ 즉 ‘고급 인력’을 가리키며, (3b)의 경우 ‘CPU(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개념적 전이나 의미의 확장이 가능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두뇌’의 환유와 은유

<그림 1>에서 보듯이 (3a)의 경우 ‘두뇌’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틀(frame)’ 속에 놓여 있는데, ‘인간’에 인접해 있는 ‘두뇌’의 부분에 의미적 현저성을 부여함으로써 ‘두뇌’라는 매체를 통해 ‘인재’라는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3b)의 경우는 ‘인간’과 ‘컴퓨터’의 두 가지 개념 영역에 대해 유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컴퓨터에서 CPU가 기능하는 방식을 인간의 경우 두뇌가 기능하는 방식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3a)의 개념적 환유와 (3b)의 개념적 은유가 성립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 하나의 영역 안에서, 후자의 경우 두 가지 영역 간에 관련된 항목의 의미 전이, 즉 ‘사상’이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3. 환유 표현의 양상

3.1. 확대지칭 양상

환유의 확대지칭 양상은 인접한 두 요소 가운데 부분이 매체가 되어 보다 더 큰 목표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⁶⁾ 이 경우 부분은 특징적이고 현저함으로써 전체에 대하여 정신적 접근을 수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의 한 부분’이 ‘사람’을 지칭한다. 사람의 신체는 여러 부위로 구성되는데, (4)에서 보듯이 특정한 신체 부위가 매체로 부각되어 그러한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4) a.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젊은 **두뇌**들. (조선일보, 2005.3.15: A31)

b. 영화계에 새 **얼굴**이 등장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주요 어휘용례집: 명사 편』, 2003: 1586.)

6) 전통적 수사학자들은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계유(synecdoche)’라고 하였는데, Lakoff & Johnson(1980:36)에서는 ‘계유’를 환유의 특별한 경우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계유’를 개념적 환유의 일환으로 다룬다.

- c. 이제 어느 곳에도 더 이상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은 없었다. (CETconc⁷⁾)
- d. 박대통령의 입 9년. (중앙일보, 2005.3.14: 31)
- e. 어깨들이 물러갔다. (일간스포츠, 1996.3.5: 31)
- f. 미술계 큰손 연일 복적, 화랑마다 즐거운 비명. (중앙일보, 2005.5.24: E1)
- g. 남북 여성 주먹 평양서 첫 격돌. (동아일보, 2005.5.21: A2)
- h. 차세대 건각 허장규 떴다. (중앙일보, 2005.5.23: 21)
- i. 젊은 피가 오늘밤 터키 울린다. (문화일보, 2004.6.5: 16)

(4)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두뇌’는 ‘인재’, ‘얼굴’은 ‘배우’, ‘눈’은 ‘사람’, ‘입’은 ‘대변인’, ‘어깨’는 ‘조직폭력배나 건달’, ‘큰손’은 ‘거대고객’, ‘주먹’은 ‘권투선수’, ‘건각’은 ‘마라톤 선수’, ‘피’는 ‘선수’를 가리킨다.

둘째, ‘사물의 한 부분’이 ‘사물 전체’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례는 범주의 원형 효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5)에서 보듯이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인 ‘원형’을 통하여 범주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 (5) a. 군인·평양시민도 “쌀이 없다”. (조선일보, 2005.5.23)
- b. 대금과 피아노의 만남. (매일신문, 2005.5.28: 문화면)
- c.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님의 침묵』, 1934: 66, 한성도서.)

(5)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쌀’은 ‘양식’, ‘대금’은 ‘국악’, ‘피아노’는 ‘양악’, ‘칼’은 ‘무력’, ‘황금’은 ‘재물’을 가리킨다.

셋째, ‘소유물’이 ‘소유자’를 지칭한다. 소유물은 소유자에 포섭된 요소로서, (6)-(7)에서 보듯이 개념적으로 현저한 소유물을 부각함으로써 이름을 모르거나 객체화된 소유자에 정신적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 (6) a. 선글라스는 신이 났다. (중앙일보, 「구름의 역사」, 2004.4.16: 27)
- b. 투쟁의 머리띠는 삶의 벡타이로. (중앙일보, 2005.5.23: 5)

7) ‘CETConc’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추출기’를 가리킨다.

- c. 진수는 **노란 조끼**와 **흰 운동화**가 땀을 흘리며 장롱을 들어내는 동안 쪼그리고 앉아 굴러다니는 백원짜리 동전을 챙겼다. (김영하, 『이사』, 『오빠가 돌아왔다』, 2004: 147, 창작과 비평사.)
- (7) a. **별**들은 말이 없지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盧**대통령 발언에 침묵. (동아일보, 2004.12.16: A4)
- b. 평준화 세대 **금배지** 진출. (매일신문, 2004.4.17: 5)
- c. “**철가방**이 총출동 한번 하는구나.” (안도현, 『짜장면』, 2003: 67, 열림원.)

(6)-(7)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6)의 ‘선그라스’는 ‘선그라스를 낀 사람’, ‘머리띠’는 ‘머리띠를 두른 사람, 즉 투사’, ‘넥타이’는 ‘넥타이를 맨 사람, 즉 직장인’, ‘노란 조끼’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 ‘흰 운동화’는 ‘흰 운동화를 신은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7)의 ‘별’은 ‘군 장성’, ‘금배지’는 ‘국회의원’, ‘철가방’은 ‘중국음식 배달원’을 가리키는데, 이 보기들은 관습화의 정도가 한층 더 고착화된 것이라 하겠다.

넷째, ‘시간의 한 부분’이 ‘시간 전체’를 지칭한다. 시간은 물이 흐르듯이 연속적인 현상이다. (8)에서 보듯이 연속적인 시간의 한 부분을 매체로 하여 그 시간대의 전체적인 개념에 정신적 접촉을 하게 된다.

- (8) 이 책은 인류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길잡이의 뭇을 한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8)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어제, 오늘, 내일’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더 큰 시간을 가리킨다.

다섯째, ‘사건의 한 부분’이 ‘사건 전체’를 지칭한다. 하나의 사건은 일련의 하위 사건들로 구성되는데, (9)-(10)에서 보듯이 가장 현저한 하위 사건을 매체로 하여 사건 전체를 환기한다.

- (9) a. 과천청사 미화원 **머리띠** 묶다. (조선일보, 2005.4.27: A10)
- b. 마산중학에서 **교편을 잡으셨을 때** 교무실 탁자 위에 있던 그 ‘꽃’은 이제 영

영 늙지도, 시들지도 앓는 우리들의 ‘시’가 되었다. (『가슴 가슴에 꽃 하나씩 안겨 주시고』, 『좋은생각』, 2005년 2월호: 30)

c. **면사포 쓰다**. (매일신문, 2005.5.20: 27)

d. 대형 뮤지컬들의 **막이 오른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5년 6월호: 24)

e. 판교와 파주·아산 3개 신도시 조성사업이 다음 달 일제히 **첫 삽을 뜬다**. (경향신문, 2005. 5.29: 1)

(10) a. 내일 시험인데 해둔 공부가 없어도 저녁 **밥숟가락을 놓으면** 꾸벅거렸다. (KCP⁸⁾)

b. 지난 80년 그는 과감히 **글러브를 벗었다**. (스포츠투데이, 2004. 5.19)

(9)-(10)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9)의 ‘머리띠 묶다’는 ‘데모하다’, ‘교편을 잡다’는 ‘교직 생활을 하다’, ‘면사포 쓰다’는 ‘결혼식을 올리다’, ‘막이 오르다’는 ‘공연이 시작되다’, ‘첫 삽을 뜨다’는 ‘택지조성 작업이 시작되다’를 가리키며, (10)의 ‘밥숟가락을 놓다’는 ‘식사를 끝내다’, ‘글러브를 벗다’는 ‘야구선수 생활을 끝내다’를 가리킨다.

여섯째, ‘신체 부위의 한 반응’이 ‘그 반응에 관한 감정 전체’를 지칭한다. 감정이 동반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11)에서 보듯이 특정한 신체 생리적 반응은 곧 그 감정을 대표한다.⁹⁾

(11) a. 이현상의 그 근엄한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이병주, 『지리산』 3, 1985: 75, 기린원.)

b.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쟈요.” 하고 **얼굴이 노랗게 되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김유정, 『땡땡』, 『원본김유정전집』, 1987: 308, 한림대학출판부.)

c. 나는 그녀에 대한 미움으로 **치를 떨어뜨렸다**. (박완서, 『나목』, 1987: 54, 작가정신.)

d. 만도는 **코허리가 쩡했다**. (하근찬, 『수난이대』, 『한국현대대표소설선』 9,

8) ‘KCP’는 ‘KAIST Concordance Program’을 가리킨다.

9) 이것을 Ungerer & Schmid(1996:131-133)에서는 감정의 ‘생리적 환유(physiological metonymy)’라고 한다.

1996: 255-256, 창작과 비평사.)

- e.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쓰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김유정, 「봄·봄」, 『한국현대대표소설선』 3, 1996: 382, 창작과 비평사.) 「」
- f. 순이의 **눈은 기쁨에 이글이글 빛났다**. (정비석, 「성황당」, 『한국현대대표소설선』 5, 1996: 343, 창작과 비평사.)
- g. 이젠 또 무슨 엉뚱한 서론일까, 영은의 **귀가 바짝 곤두섰다**. (김수현, 『겨울새』, 1997: 191, 애플미디어.)
- h. 옥비는 송가원의 옆에 살포시 자리잡고 앉았다. 송가원은 옥비 쪽의 **몸에 찌르르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다. (조정래, 『아리랑』 9, 1995: 212, 해냄.)

(11)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얼굴이 달아오르다’는 ‘화’, ‘얼굴이 노랗게 되다’는 ‘두려움’, ‘치를 떨다’는 ‘미움’, ‘코허리가 쨍하다’는 ‘슬픔’, ‘얼굴이 발개지다’는 ‘부끄러움’, ‘눈이 이글이글 빛나다’는 ‘기쁨’, ‘귀가 바짝 곤두서다’는 ‘긴장’, ‘몸에 찌르르 전기가 통하다’는 ‘사랑’을 가리킨다.

3.2. 축소지칭 양상

환유의 축소지칭 양상은 인접한 두 요소 가운데 전체가 현저한 매체가 되어 부분인 목표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는 부분의 여러 요소를 포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전체에 인접한 목표를 환기하는 정신적 접근을 수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이나 신체의 전체’가 ‘사물이나 신체의 한 부분’을 지칭한다. 사물이나 신체 또는 신체의 상위 부분은 여러 가지 하위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13)에서 보듯이 그 특징적인 부분이 매체가 되어 전체를 환기한다.

- (12) a.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편지를 쓰고 있었다. (공지영, 『봉순이 언니』, 2002: 99, 푸른숲.)
- b. 그러다가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에야 마침내 한 점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안도현, 『짜장면』, 2003: 598, 열림원.)

- (13) a. 눈두덩이 뭉그러지고, **팔**이 부러질 때까지 두들겨 맞고 와서도 겨우 한숨이 나 내쉬는 너 같은 년은 그러니까 맞아도 싸다고. (이명량, 『삼오식당』, 2002: 26, 시공사.)
- b. 깃이 받은 원피스는 단정해 보였지만 **가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1993: 125, 고려원.)

(12)-(13)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12)에서 ‘연필’은 ‘연필심’, ‘시계’는 ‘시계 바늘’을 가리키며, (13)에서 ‘팔’은 ‘팔의 뼈’, ‘가슴’은 ‘젓가슴’을 가리킨다.

둘째, ‘그릇’이 ‘내용물’을 지칭한다. ‘그릇’은 ‘내용물’을 포섭하고 있으며 각각적으로 현저한데, (14)에서 보듯이 인접성 관계에 있는 ‘그릇’이 ‘내용물’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 (14) a. 복도의 풍로 위에서 커다란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이범선, 『오발탄』, 『한국현대대표소설선』 9, 1996: 66, 창작과 비평사.)
- b.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켰다. (박경리, 『불신시대』, 『한국현대대표소설선』 8, 1996: 167, 창작과 비평사.)
- c. “**한 손갈**만 더 먹어, 응?” (이명량, 『삼오식당』, 2002: 61, 시공사.)

(14)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주전자’는 ‘주전자의 물’, ‘술병’은 ‘술병 속의 술’, ‘한 손갈’은 ‘한 손갈의 밥’을 가리킨다.

셋째, ‘국명/지명’ 또는 ‘건물’이 ‘소장품, 사람, 대표자/정부’를 지칭한다. (15)-(19)에서 보듯이, 국명이나 지명 또는 건물은 현저한 매체로서 소장품, 사람, 대표자 및 정부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 (15) a. **고구려**가 서울 왔다. (동아일보, 2005.4.2: A1)
- b. **빨간**이 몰려온다. (문화일보, 2005.1.3: 26)
- (16) a.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 (SBS, 『웃찾사』에서)
- b. **서울**이 놀란 그림보다 비싼 사진. (동아일보, 2005.2.1: A18)

- c. 그날, 소록도가 웃었다. (한겨레21, 2005.5. 제561호: 74)
- d. 수원 영통구가 전국서 제일 짧다. (조선일보, 2004.9.26: A1번)
- (17) a. 북한의 결단을 환영한다. (한겨레신문, 2005.6.17.)
- b. 남·북, 북핵 놓고 ‘밤샘 줄다리기’. (중앙일보, 2005.5.18)
- (18) 대영 박물관을 서울서 보다니… 한국 전시회 어제 예술의 전당서 개막. (조선일보, 2005.4.13: A1)
- (19) a. “제가 집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경호승, 『너를 위해 나는 무엇이 될까』, 2004: 184, 해냄.)
- b. 한국 교회 통곡 기도회. (조선일보, 2004.10.30: A2)
- c. “왕영용씨 작년에 유전사업 청와대에 보고.” (동아닷컴, 2005.5.9. 09:57)

(15)-(19)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15)의 ‘고구려’는 ‘고구려 유물’, ‘발칸’은 ‘구 유고연방 국가들의 현대미술품들’, (16)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서울’은 ‘서울 시민’, ‘소록도’는 ‘소록도 주민’, ‘수원 영통구’는 ‘수원 영통구 주민’, (17)의 ‘북한’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 ‘남·북’은 ‘남측 대표·북측 대표’를 가리킨다. 또한, (18)의 ‘대영 박물관’은 ‘대영 박물관 소장품’, (19)의 ‘집’은 ‘가족’, ‘교회’는 ‘교인’, ‘청와대’는 ‘청와대의 대통령’을 가리킨다.

넷째, ‘기관이나 단체’가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을 지칭한다. (20)-(22)에서 보듯이, 기관이나 단체는 현저한 매체로서 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 (20) a. 30·40대 43% … 짧어진 국회. (중앙일보, 2004.4.17: 9)
- b. 국민은행 먼저 웃었다. (동아일보, 2005.3.5: A26)
- (21) a. 구미형일초교 관악경연대회 금상. (매일신문, 2004.9.13: 38)
- b. 서울대 음대 카네기 홀서 연주. (한겨레, 2005.3.15: 21)
- (22) a. 예루살렘 행진 참석차 개신교 백 명 출국강행. (조선일보, 2004.7.27: A1)
- b. 한나라 개혁성향 더 필요. (매일신문, 2004.9.30: 1)

(20)-(22)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20)의 ‘국회’는 ‘국회의

원’,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선수들’, (21)의 ‘구미형일초교’는 ‘구미형일 초등학교 관악부원’, ‘음대’는 ‘음대생’, (22)의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 ‘한나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가리킨다.

다섯째, ‘생산회사/생산지/생산자’가 ‘생산품’을 지칭한다. (23)-(25)에서 보듯이, 생산회사/생산지/생산자는 현저한 매체로서 인접성 관계에 있는 생산품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23) a 그는 **현대**를 몰고 있다.

b. “**보루네오**가 비싼지 알기는 아네. 왜? 얼만지 털어놓으면 뒤로 자빠질라구?” (이명량, 『삼오식당』, 2002: 10, 시공사.)

(24) a. **순창** 하나 주세요. b. **성주**가 뜬다. (서울경제, 2005.5.26)

(25) a. 지구촌. **황우석** 충격.¹⁰⁾ (매일신문, 2005.5.21: 5)

b. 서울에 온 **톨스토이**. (동아일보, 2004.12.13: A16)

(23)-(25)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23)의 ‘현대’는 ‘현대산 자동차’, ‘보루네오’는 ‘보루네오 회사의 가구’, (24)의 ‘순창’은 ‘순창산 고추장’, ‘성주’는 ‘성주 참외’를 가리키며, (25)의 ‘황우석’은 ‘황우석의 연구 성과’, ‘톨스토이’는 ‘톨스토이의 육필원고’를 가리킨다.

여섯째, ‘차량’이 ‘운전자’를 지칭한다. (26)에서 보듯이, 지각적으로 ‘차량’은 ‘운전자’보다 크고 현저한 매체로서 인접성 관계에 있는 ‘운전자’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26) a. 4대도시 **지하철** “오늘 파업”. (조선일보, 2004.7.21: 1)

b. **버스** 파업은 市 책임. (조선일보, 2005.5.29)

c.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현진건, 『운수 좋은

10)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생산품’을 지칭하는데, 다음 표현에서는 ‘생산품’이 ‘생산자’를 지칭한다. 즉 “**복제양과 복제송아지**의 만남— ‘돌리’ 만든 월멧 박사, 황우석 교수팀에 ‘루게릭병 치료’ 제안. (조선일보, 2004.4.7: A1)”에서 ‘복제양’은 ‘복제양 돌리’를 만든 ‘월멧 박사’, ‘복제송아지’는 ‘복제송아지’를 만든 ‘황우석 교수’를 가리킨다.

날, 『한국현대대표소설』 1, 1996: 342, 창작과 비평사.)

(26)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지하철’은 ‘지하철 노조원’, ‘버스’는 ‘버스 기사’, ‘인력거’는 ‘인력거꾼’을 가리킨다.

일곱째, ‘계절’이 계절에 관련된 ‘산물’을 지칭한다. ‘계절’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27)-(28)에서 보듯이 관련된 요소들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27) a. 봄을 씹어요. (동아일보, 2004.3.22: D3)

b. 정성껏 만나는 그 간절한 사랑을/ 눈물겨워하며 밤 한 톨을 깎아/ 가을을 먹습니다. (이혜인, 「가을에 밤(栗)을 받고」, 『작은 위로』, 2002: 151, 열림원.)

c. 상주의 겨울은 달디 달다. (조선일보, 2006.1.12: A9)

(28) 편안한 여유를 겨울 속에서 즐기자. (한국일보, 2004.12.2.)

(27)-(28)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27)의 ‘봄’은 ‘봄나물’, ‘가을’은 ‘가을의 밤(栗)’, ‘겨울’은 ‘겨울 꽃감’을 가리키며, (28)의 ‘겨울’은 ‘온천’을 가리킨다.

여덟째, ‘시점, 명절’이 ‘시점의 식사, 명절 제상(祭床)’을 지칭한다. 시점이 나 명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29)-(30)에서 보듯이 관련된 요소들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한다.

(29) 봉순이 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나를 부르러 갔다. (공지영, 『봉순이 언니』, 2002: 53, 푸른숲.)

(30) 대추 밤을 돈사야 추석을 차렸다. (노천명, 「장날」, 『노천명전집1(시)-사슴』, 1997: 51, 숲.)

(29)-(30)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저녁’은 ‘저녁 식사’, ‘추석’은 ‘추석상’을 가리킨다.

3.3. 상호전이 양상

환유의 상호전이 양상은 인접한 두 요소 가운데 매체와 목표가 상호 교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곧 두 실체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평형을 이룰 때, ‘매체-목표의 역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매체’로 선택된 실체는 지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현저성을 띠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이 ‘시간’, ‘시간’이 ‘사건’을 지칭한다. ‘사건’과 ‘시간’은 일상적 체험에서 하나의 개념적 영역을 형성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31)에서 보듯이 ‘사건’은 ‘시간’을 환기하며, (32)에서 보듯이 ‘시간’은 ‘사건’을 환기한다.

- (31) a.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다. (스포츠동아, 2004.8.8: 1)
- b. 연주회가 길어졌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c. 시험이 가까워서인지 도서관에 자리가 꽉 찼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32) a. 김 노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b. 이 소설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c. 8.15 대규모 일반사면 필요. (동아일보, 2005.5.19: A1)

(31)-(32)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31)은 사건이 시간을 지칭한 것으로서, ‘아테네 올림픽’은 ‘아테네 올림픽 개막 시간’, ‘연주회’는 ‘연주회 시간’, ‘시험’은 ‘시험 시간’을 가리킨다. 역으로, (32)는 시간이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의 ‘시간’은 ‘여생(餘生)’, ‘조선 후기’는 ‘조선 후기 사회’, ‘8.15’는 ‘8.15 광복절’을 가리킨다.

둘째, ‘거리’가 ‘시간’을 지칭하거나, ‘시간’이 ‘거리’를 지칭한다. 이동의 상황에서 ‘거리’와 ‘시간’은 개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33)에서 ‘거리’는 ‘이

동 시간'을 나타내며, 역으로 (34)에서 '시간'은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33) 나는 친구가 운전하는 동안 **100킬로미터**를 자고 있었다.

(34) a. 인천은 서울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다.

b.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KTX로 **한 시간 오십 분**이다.

(33)-(34)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33)은 거리가 시간을 지칭한 것으로서, '100킬로미터'는 '100킬로미터의 이동 시간'을 가리킨다. 역으로 (34)는 시간이 거리를 지칭한 것으로서, '한 시간'은 '한 시간의 거리'를, '한 시간 오십 분'은 '한 시간 오십 분의 거리'를 가리킨다.

셋째, '원인'이 '결과'를 지칭하거나, '결과'가 '원인'을 지칭한다. 원인과 결과는 개념적으로 긴밀한데, '한 잔 하다'가 원인이 되어 '취하다'라는 결과에 이르며, '옷을 벗다'라는 결과는 '퇴직하다'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35)에서 보듯이 원인은 결과에 인접해 있고 (36)에서 보듯이 결과 또한 원인에 인접해 있으므로 상호간에 매체가 되는 요소가 목표에 정신적 접촉을 환기하게 된다.

(35) a. 셋은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연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에서)

b. 과천청사 미화원 **머리띠를 묶다**. (조선일보, 2005.4.27: A10)

c. 나는 이 곳에서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두 **팔을 걷어붙인 채** 실무에 종사하였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에서)

(36) a.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눈을 흘겼다**. (계용목, 「백치 아다다」, 『한국현대대표 소설선』 5, 1996: 354, 창작과 비평사.)

b. 황규연은 통산 4번째 **꽃가마를 탔다**. (박달화, darling@sportstoday.co.kr, 2004.4.8)

c. 이일현은 한국배드민턴의 희망. 영등포초등학교 5학년 때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고 6년 뒤인 서울체고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다**. (동아일보, 2006.1.23: A28)

(35)-(36)의 환유 표현에 따른 매체와 목표를 보면, (35)의 '머리를 맞대다'

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의하는 것을 뜻하며, ‘머리띠를 묶다’는 농성이나 데모하는 것을 뜻하며, ‘팔을 걷어붙이다’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뜻한다. 곧 머리를 맞대고, 머리띠를 묶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후속되는 결과의 원인을 가리킨다. 또한 (36)의 ‘눈을 흘기다’는 미워하는 것을 뜻하며, ‘꽃가마를 타다’는 씨름대회의 천하장사가 되는 것을 뜻하며, ‘태극마크를 달다’는 국가대표선수가 되는 것을 뜻한다. 곧 눈을 흘기고, 꽃가마를 타고, 태극마크를 단 것은 미움, 천하장사 등극, 국가선수로 선발된 결과를 가리킨다.

4. 환유 표현의 작용 원리

4.1. ‘매체-목표’의 사상과 특성

환유가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매체와 목표 간의 사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환유는 하나의 인지영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두 실체 간에 ‘매체’가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기제이다. 곧 환유는 매체가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이 과정을 ‘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환유의 매체와 목표 간에 사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매체와 목표가 인접성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경험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실체는 개념적으로 쉽게 연상되거나 호환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벤치’에 대한 다음 표현을 보기로 한다.

- (37) a. 우리는 늦은 밤까지 학교 실기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곤 했고, 가끔씩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을 즐기기도 했다. (CETConc.)
 b. 그러나 최용수(LG)에 가려 한달 내내 **벤치**를 지키는 설움을 감내해야 했던 그는 팀에 복귀하자마자 마치 시위라도 하듯 고비마다 알토란같은 골을 쏘

쭉 뽑아내곤 하는 것이다. (CETConc.)

- c. “실력도 달렸지만 **벤치**와 선수들이 이성을 잃고 흥분돼 있었다.”고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CETCo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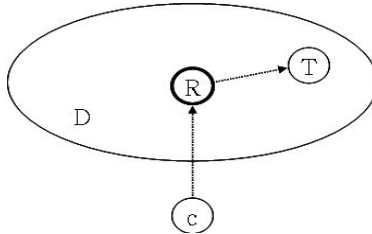
곧 ‘벤치’는 (37a)의 경우 ‘(공원이나 캠퍼스에 설치해 놓은) 긴 의자’, (37b)의 경우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가 대기하도록 설치해 놓은 긴 의자’, (37c)의 경우 ‘축구장에서 긴 의자를 설치한 곳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접성 관계에 있는 ‘긴 의자 → 축구장의 긴 의자 → 감독이나 코치’로 의미 전이가 일어나 (37c)의 ‘벤치’는 환유 표현이 된 것이다. 이 경우, 매체와 목표 간의 인접성에 대한 정신적 접근은 (38)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데서부터 추상적인 영역에까지 걸쳐 있다.

- (38) a. 세계 최고령 올림픽 **금메달** 파키스탄 페로제 칸 사망. (조선일보, 2005.4.23: A28)
- b.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c. 수많은 **눈들**과 한겨레의 **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한겨레, 2005.5.9. 19:17)
- d. 그대의 **입술**이 성공을 연다. (경향신문, 2005.4.30: A12)

즉 (38a)의 ‘**금메달**→**금메달리스트**’는 매체와 목표가 구체적이며, (38b-c)의 ‘**빵**→**양식**→**물질**, **눈**→**독자**→**독자의 안목**’은 구체적인 매체에서 구체적·추상적 목표로 전이되며, (38d)의 ‘**입술**→**화술**’은 구체적인 매체에서 추상적인 목표로 전이되고 있다.

한편, Langacker(1993:6)에서는 지시점을 통한 목표의 조정 및 활성화 능력, 곧 환유적 능력이 인간의 기본적 인지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한 바 있다. 이 경우 ‘지시점’은 덜 현저한 개념적 실체에 대한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현저한 개념적 실체를 뜻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지시점에 대한 활성화 능력은 2단계의 정신적 접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에서 개념화자

(conceptualizer, C)는 점선 화살표를 따라 실마리가 될 만한 접근하기 쉬운 대상인 '지시점(reference point, R)'과 정신적 접촉을 한다. 제2단계에서 이 지시점을 실마리로 점선 화살표를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체, 즉 '지배영역(domain, D)'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인 '목표(target, T)'와 정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그림 2> 지시점의 활성화 모형

요컨대 우리는 환유의 '매체-목표' 사상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현저한 지시점, 즉 '매체'에 정신적 접근을 하게 되며, 이차적으로 주의의 초점을 받는 환유적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개념적 환유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환유의 '매체-목표' 사상 과정에서 '매체'는 이해, 기억, 인식의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고 점화하는 지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매체'의 어떤 특성이 특정한 '목표'에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가? 곧 지시점으로서 매체는 의사소통적 요구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¹¹⁾ 이른바, 환유의 매체 선택에 있어서 선호되는 상대적 현저성

11) 이것을 Radden & Kövecses(1999:44-52)에서는 환유의 매체 선택을 지배하는 '상대적 현저성의 원리(principles of relative salience)'라 하고 다음 두 가지 하위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저성의 인지적 원리: (i) 인간 경험에 있어서 '인간>비인간, 주관적>객관적, 구체적>추상적, 상호작용적>비상호작용적, 기능적>비기능적'이다. (ii) 지각적 선택에 있어서 '즉각적>비 즉각적, 발생적>비발생적, 더 많은>더 적은, 지배적>덜 지배적, 좋은 계슈탈트>나쁜 계슈탈트, 경계 지어진>경계 지어지지 않은, 특정적>총칭적'이다. (iii) 문화적 선호에 있어서 '판에 박힌>판에 박히지 않은, 이상적>비이상적, 전형적>비전형적, 중심적>주변적, 처음·마지막>중간, 기본적>비기본적, 중요한>덜 중요한, 혼란>덜 혼란, 드문>덜 드문'이다. 둘째, 현저성의 의사소통적 원리: (i) 명료성의 원리에서 '명확한>모호한'이다. (ii) 적절성

의 원리는 다양한 환유 표현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작용하기도 하며, 복합적 또는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며 상황 의존적 성격을 띠고 하겠다. 그러면, 환유 표현에서 지시점으로서 매체가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39)는 환유의 확대지칭에 관한 매체의 현저성이다.

(39) a. 축구소년 김귀현 ‘태극마크를 꿈꾸며’. (KBS, 2006.1.4. 23:35)

b. “꿈에서도 내가 태극마크를 달게 될 줄 몰랐다”고 밝힐 정도로 그간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던 그는 난생 처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뒤 2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한다. (조이뉴스24, 2005.12.27. 9:35)

(39)에서 ‘태극마크’는 ‘국가대표 선수’, ‘태극마크를 달다’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다’를 뜻하는 확대지칭의 환유 표현이다. 이 경우 ‘태극마크’는 우리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국가대표 선수의 상징이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그리게 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될 부분이 태극마크일 만큼 태극마크는 국가대표 선수의 변별적 자질이다. 따라서 태극마크는 국가대표 선수의 유니폼을 입는 사람, 더 추상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의 관습화된 상징이다. 우리는 태극마크와 같이 개념적으로 현저한 실체로부터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덜 현저한 실체에 대해 정신적인 길을 추적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으로서 ‘태극마크’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전체, 곧 목표에 정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시점, 곧 매체가 된다.

둘째, (40)은 환유의 축소지칭에 관한 매체의 현저성이다.

(40) a. 구미형일초교 관악경연대회 금상. (매일신문, 2004.9.13: 38)

b. 1라운드 국민은행에 분패하며 4승 1패로 2위로 마감했던 신한은행은 2라운드 우리은행에 아쉽게 패하며 4승 1패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 나섰다. (iMBCsports, 2006.1.17. 15:56)

원리에서 ‘적절함>부적절함’이다. (iii) 경쟁적 동기에서 ‘수사적 효과’ 및 ‘사회-의사소통적 효과’이다.

(40)에서 ‘구미형일초교’는 ‘구미형일초교 관악부 학생’,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농구단 선수’를 뜻하는 축소지칭의 환유 표현이다. 이 경우 ‘학교’나 ‘은행’과 같은 전체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지시점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학교’나 ‘은행’은 영구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현저한데, ‘건물, 기구/법인, 인적요소, 역할’ 등의 다면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은행’은 구성원인 학생이나 선수들이 대회나 경쟁에서 우승함으로써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나 ‘은행’은 현저한 매체로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목표’에 맞추어 조정되고 활성화된다.

셋째, 환유의 ‘상호전이 양상’에서 매체의 특성을 보기로 한다.

(41) a. 과천시사 미화원 **머리띠를 묶다**. (조선일보, 2005.4.27: A10)

b. 황규연은 지난 2001년 10월 영암대회 이후 2년 6개월만이자 통산 4번째 **꽃가마를 탔다**. (박달화, darling@sportstoday.co.kr, 2004.4.8)

(41)에서 ‘머리띠 묶다’는 원인으로서 ‘투쟁하다’라는 결과를 환기하며, ‘꽃가마 타다’는 결과로서 ‘씨름판의 천하장사가 되다’라는 원인을 환기하는 환유 표현이다. (39)와 (40)에서 본 확대지칭과 축소지칭에서는 매체와 목표가 비대칭적인데 비해, ‘원인’과 ‘결과’와 같은 상호지칭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실체가 동등한 비중을 가짐으로써 ‘매체-목표’가 역전될 수 있다. 이것은 ‘루빈의 컵’에서 보듯이(Rubin 1958:201 참조), 두 실체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동등할 경우 ‘전경-배경’이 역전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체’로 선택된 실체는 개념화자에게 현저한 실체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겠다.

4.2. 환유 표현의 사용 효과

환유를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¹²⁾ 이것은 곧 글자 그대로의 표현에 비

해 환유 표현이 갖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효과에서 비롯된다.

첫째, 환유 표현은 경제성의 효과를 갖는다. 환유 표현은 글자 그대로의 표현에 비해 짧으므로 경제적이다. 이 점을 (42)-(43)의 환유 표현과 글자 그대로의 표현을 통해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42) a. 자동차에 기름을 칠했다. b. 자동차의 엔진에 기름을 칠했다.

(43) 갑: 학회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a. 을: 고속철(KTX)을 탔습니다.

b. 을: 집을 나서서 5분간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고속철(KTX)을 탔습니다. 기차역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에 내려 학회장까지 걸어 왔습니다.

(42a)의 ‘자동차’는 (42b)의 ‘자동차의 엔진’을 가리키는 축소지칭의 환유 표현이다. 또한 (43a)의 ‘고속철을 타다’는 (43b)의 연속 사건 가운데 하나로서 확대지칭의 환유 표현이다. 이에 대해 언중들은 환유 표현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수용해내게 된다. 어느 면에서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길고 지루하여 의사소통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환유 표현은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적인 측면을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의 효과를 갖는다.

둘째, 환유 표현은 유연성의 효과를 갖는다. 환유 표현에서 유연성 효과는 주로 축소지칭 양상에서 확인된다. (44)의 네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자.

(44) a. 아직 $\Delta\Delta$ 일보가 오지 않았다. b. 그는 $\Delta\Delta$ 일보에 들어갔다.
c. $\Delta\Delta$ 일보는 펍 친절하다. d. 그는 $\Delta\Delta$ 일보를 샀다.

(44)의 ‘ $\Delta\Delta$ 일보’는 ‘신문, 신문사나 신문사의 건물, 신문사 사원, 신문이나 신문사 주식’ 등의 여러 국면을 가리킨다.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 $\Delta\Delta$ 일

12) 이와 관련하여 Cruse(2000:214)에서는 환유를 사용하는 동기를 ‘경제성, 지시물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연상적 관계에 윤곽 부여하기’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한 바 있다.

보'가 배체가 되어 특정한 목표를 환기하게 되므로 환유 표현은 매우 유연하다. 이러한 유연성은 경제성의 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환유 표현의 유연성 효과는 다음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 (45) a. **학마을**은 한껏 즐겁고 풍성하였다.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한국현대대 표소설선』 9, 1996: 19, 창작과 비평사.)
 b. **학마을 사람들**은 한껏 즐겁고 **학마을**은 한껏 풍성하였다.
 c. [?]**학마을 사람들**은 한껏 즐겁고 풍성하였다.

(45a)의 ‘학마을’은 (45b)의 ‘학마을 사람들’과 ‘학마을’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서 ‘학마을’이 ‘학마을 사람들’을 지칭할 경우 환유 표현이 된다. 그러나 (45c)의 ‘학마을 사람들’은 ‘즐겁다’와 ‘풍성하다’의 서술어를 동시에 통제할 수 없으므로 ‘액어법¹³⁾’이 된다. 곧 (45a)의 환유 표현은 액어법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의 효과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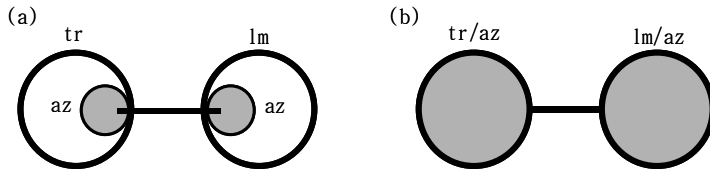
한편, 환유 표현의 유연성은 탄도체와 지표에 대한 ‘활성지역¹⁴⁾’의 불일치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 (46) a. **철수**가 **개**에게 물렸다. b. **우주선**이 **달**에 다가갔다.

(46)에서 ‘철수-개, 우주선-달’은 이동하는 ‘탄도체(trajactor)’와 고정된 ‘지표(landmark)’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 중 (46a)의 ‘철수’는 ‘철수의 뒷다리’, ‘개’는 ‘개의 이빨’을 가리키는 축소지칭의 환유 표현으로서 <그림 3(a)>에서 보듯이 ‘탄도체’와 ‘지표’ 간에 ‘활성

13) ‘액어법(zeuma)’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개의 의미적 수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색한 표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rthur and his driving licence **expired** last Thursday.”에서 ‘expire’는 ‘죽다’와 ‘만기되다’를 뜻하는 ‘액어법’ 표현인데, “Arthur **expired** last Thursday; his driving licence **expired** that day, too.”라고 하여 ‘expire’를 분리함으로써 액어법의 이상함을 해소하게 된다(Cruse 1986:21, 2000:46 참조).
 14) ‘활성지역(active zone)’이란 특정한 관계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대하게 그 관계에 참여하는 실체물, 즉 탄도체나 지표의 부분을 뜻한다(Langacker 1993:31, Taylor 2002:109-112참조).

지역(active zone)'이 불일치한 것인데, 활성지역의 불일치 현상은 필요에 따라 정보의 양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의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그림 3(b)>에서 보듯이 (46b)의 탄도체인 '우주선'과 지표인 '달' 간에는 활성지역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림 3> '탄도체(tr)-지표(lm)'의 활성지역(az)

셋째, 환유 표현은 사실성의 효과를 갖는다. 이 점을 다음의 신체 부위에 대한 확대 지칭 환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47) a. 일손을 구합니다. (매일신문 1999.3.15: 7) / a'. 사람을 구합니다. (중앙일보 1999.4.9: 19)
 b. 등산화에 앞산이 무너진다. (매일신문, 2005.5.24: 30) / b'. 등산객에 앞산이 무너진다.

(47)에서 '일손'과 '등산화'는 각각 '일꾼'과 '등산객'을 지칭하는 환유 표현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일꾼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일손'을 부각함으로써 사실성의 효과를 낳으며, '등산객'에 의해 산이 파괴되는 것을 '등산객'이 신은 '등산화'를 선택함으로써 산의 파괴에 대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를 거둔다.

한편, (11)의 감정에 대한 생리적 환유에서 보았듯이, 감정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사전적인 정의로는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일상 언어에는 '화내다'를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다', '두렵다'를 '얼굴이 노랗게 되다', '밉다'를 '치를 떨다', '슬프다'를 '코허리가 쨍하다', '부끄럽다'를 '얼

굴이 발개지다’, ‘기쁘다’를 ‘눈이 이글이글 빛나다’, ‘사랑하다’를 ‘몸에 찌르르 전기가 통하다’고 함으로써 감정 상태의 생생한 현장감을 얻게 된다.

넷째, 환유 표현은 참신성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표현 효과는 (48)의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49)의 일상 언어에서도 널리 확인된다.

- (48) a.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오나.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박목월, 「하관」, 『난 기타』, 1959: 17-18, 신구문화사.)
- b.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의 신발**이 왔다. (박목월, 「가정」, 『청담』, 1964: 10, 일조각.)
- c. 대추 밤을 돈사야 **추석**을 차렸다. (노천명, 「장날」, 『노천명전집1(시)-사슴』, 1997: 51, 숲.)
- d. 어느 날 **혀**는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개새끼!’라고 소리쳤다. 승객들이 가득한 전동차 안이었다. 놀란 **눈알**들은 일제히 그 말을 받아들인 내 입과 입에 달린 얼굴을 쳐다보았다. 돌렸다. (김기택, 「어느날, 혀는」, 『창작과 비평』, 2005년 여름: 123, 창작과 비평사.)
- (49) a. 남북 여성 **주먹** 평양서 첫 격돌. (동아일보, 2005.5.21: 2)
- b. 새 **피** 수혈론. (조선일보, 1999.1.5: 4)15)
- c. 매혹의 섬, **육지도**를 낚다. (KTX, 2006년 1월호: 44)
- d. **봄**을 한 움큼 가져가세요. 주변 야산에서 손수 캔 냉이, 달래, 쑥들을 늘어 놓고 **봄**을 팔면서 할머니들은 천 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 고의춤에 넣으며 싱그러운 웃음을 연신 터뜨립니다. (한겨레, 2005.4.21: 16)

(48)에서 ‘턱이 긴 얼굴’은 ‘턱이 긴 얼굴을 가진 동생’, ‘십구문반의 신발’은 ‘십구문반의 신발을 신은 사람, 즉 아버지’, ‘추석’은 ‘추석상’, ‘혀’는 ‘혀로 말하는 사람’, ‘눈알’은 ‘눈알로 보는 사람’을 가리키며, (49)의 ‘주먹’은 ‘권투 선수’, ‘새 피’는 ‘새 인물’, ‘육지도’는 ‘육지도의 감성돔과 참돔’, ‘봄’은 ‘봄나물’을 나타낸다.

15) 참고로 조선일보(1999.1.5: 4)에서는 ‘새 피 수혈론’이라는 제목 아래 ‘새 인물 대거영입…제2 창당’이라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해 준다. 첫째, 글자 그대로의 표현이 따분하고 진부한 반면 환유 표현은 한층 더 신선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이며, 이것은 환유의 사실성 효과와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48d)에서 ‘혀’는 말을 하는 신체 기관이며, ‘눈’은 보는 신체 기관인데, 이러한 신체 기관을 통해 그러한 신체 기관의 소유자를 지칭함으로써 말하고 보는 상황을 한층 더 생생하고 참신하게 표현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효과는 시나 소설의 환유 표현과 일상 언어의 환유 표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환유 표현은 완곡 효과를 갖는다. 환유의 완곡 효과는 사실성 효과와 대조적으로, 화자나 청자 간에 직설 표현이 갖는 생생함이나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갖는다. (50)을 통해 환유 표현의 완곡 효과를 보기로 한다.

- (50) a. 그는 아직껏 만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김동인, 『감자』, 『현대소설 100년 한국 대표 단편 57인 선집』, 1999: 47, 프레스21.)
 - b. 물론 여자를 불러 같이 **잠도 한번 자보았다**. (정호승,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2004: 243, 해냄.)
- (51) a. 그리고 어제 딱 **술 한 잔** 했습니다.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흥반장』에서)
 - b. 버릇이 없어서 **손 좀 뺀** 것도 죄가 됩니까? (KYCI 한국청소년상담원 공개상담실, 2005.5.19)
 - c. 그다지도 못 잊어하시던 딸의 얼굴을 끝끝내 보지 못하고 외로이 **숨을 거두는** 어머니의 임종을 눈앞에 그려보니 쌓이고 쌓였던 묵은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심훈, 『상록수』, 2001: 222, 범우사.)
- (52) a. 한나라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사건과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다음 야고라, dwlee@ytn.co.kr, 2005.4.25)
 - b. **북한**의 결단을 환영한다. (한겨레신문, 2005.6.17. 인터넷 판)

(50)은 성에 관한 직설 표현 대신에 환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완곡 효과

를 낳은 것인데, ‘관계’는 ‘성관계’, ‘자다’는 ‘성행위를 하다’를 가리킨다. 이러한 보기들은 “그녀는 가슴(→유방)이 작다, 그는 하체(→하체의 성기)가 약하다, 강도가 여자를 폭행했다(→성폭행했다).”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51)은 음주, 오락, 구타, 죽음 등에 대해 환유 표현을 통해 그 한 부분을 지칭함으로써 책임, 비난, 충격을 완화하는 전략인데, ‘술 한잔하다’는 ‘술을 마시다’, ‘손 좀 봐 주다’는 ‘구타하다’, ‘숨을 거두다’는 ‘죽다’를 가리킨다. 한편, (52)의 ‘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북한’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가리키는데, 민감한 정치 현안이나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특정한 지도자의 이름 대신에 환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완곡 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5. 마무리

이상에서 환유 표현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 양상, 작용 원리를 통하여 그 의미특성을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기술한 바를 간추려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 즉 ‘매체’가 또 하나의 실체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 과정이며, 일상 언어는 환유 표현의 보고이다.

둘째, 환유 표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데,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확대지칭 양상, 전체로써 부분을 지칭하는 축소지칭 양상, 그리고 매체와 목표의 상호전이 양상으로 대별된다.

셋째, 환유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인접성 관계의 매체가 지시점이 되어 목표에 의미적 사상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시점으로서 매체는 의사소통적 요구에 의해 동기화되는데, 이 경우 매체 선택에 있어서 선호되는 현저성의 원리는 상대적이며 상황 의존적 성격을 띠게 된다.

넷째, 환유 표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 경제성, 효율성,

사실성, 참신성, 완곡 효과를 갖는 효율적인 인지 전략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 논의된 바는 사전편찬, 언어 및 문학교육, 언어습득과 언어장애, 뇌 과학 등의 응용언어학적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개념의 표현과 이해에 관련된 여러 학문 영역 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환유의 본질을 해명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도(2005), 『인지문법에서 본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 김기수(1998), 「인지문법에서의 환유에 대한 분석」, 『영어영문학』 44-1, 한국영어영문학회, 229-246.
- 류용달(1998), 「환유적 표현의 인지적 특성과 영어 어휘교육」, 『영어교육연구』 9, 영남영어교육학회, 11-32.
- 이종열(2002), 「국어 환유표현의 사상적 특징과 의미 작용」, 『어문학』 76, 한국어문학회, 65-93.
- 이진욱(2000), 「영어 환유의 개념구조연구」, 『언어학』 8-1, 대한언어학회, 153-169.
- 임지룡(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연구회, 223-254.
- 임지룡(1997), 『인지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담화·인지언어학회, 89-117.
- 임지룡(2002),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1-222.
- 정희자(1999), 「삶과 환유」, 『외대논총』 19-4, 부산외국어대학교, 241-267.
- 정희자(2004), 『담화와 비유어』, 한국문화사.
- Aitchison, J.(2003),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Oxford: Basil Blackwell.
-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임지룡·윤희수 옮김(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출판부.)
- Cruse, D.A.(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 Evans, V.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Gibbs, R.W.(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 Kövecses, Z.(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정화·우수정·손수진·이진희 공역(2003), 『은유: 실용입문서』, 한국문화사.)
- Kövecses, Z. & G. Radden(1998),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Cognitive Linguistics* 9-1, 37-77.
- Lakoff, G. & M.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Lakoff, G. & M. Turner(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W.(1993), "Refe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4, 1-38.
- Radden, G.(ms.), "The ubiquity of metonymy," 1-16.
- Radden, G. & Z. Kövecses(1999),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Panther, K.-U. & G. Radden(eds.),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7-59.
- Rubin, E.(1958), "Figure and ground," In Beardslee, D.C. and M. Wertheimer(eds.), *Reading in Perception*, Princeton, New Jersey, Toronto, London, New York: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4-203.

- Taylor, J.R.(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조명원 · 나익주 옮김(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 Taylor, J.R.(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 · 김동환 옮김(2005),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 Ullmann, S.(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Ungerer, F. & H.J. Schmid(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임지룡 · 김동환 옮김(1998),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K C I

ABSTRACT

Characteristics of Meaning in Metonymic Expressions

Lim, Ji-ryong

This paper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meaning in conceptual metonymic expression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metonymy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powerful cognitive tools for extending meaning and conceptualizing abstract categories in all levels of production and understanding, and everyday language is an invaluable store of metonymic expressions.

Second, conceptual metonymy is a cognitive process in which an entity or 'vehicle' evokes a mental access to another entity or 'target' when the two entities are in the relation of proximity in the same domain.

Third, aspects of metonymic expressions are very various and systematic, and three major aspects are extended reference, diminutive reference, and mutual reference.

Fourth, conceptual metonymy can be explained as a process in which a vehicle in the relation of proximity obtains a semantic mapping to a target. The vehicle, as a reference point, is motivated by communicative needs. In this case, the conspicuous preferred principle determining the vehicle's choice is relative and context-dependent.

Fifth, metonymic expressions are the results of efficient strategies which have the effects of economy, efficiency, reality, novelty, and circumlocution.